



“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 · 전시회」의 정착을 위해...”



박 천 상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아젠다로 부상할 것을 예고해주는 이시점에 '제4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 ·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환경기술이 정보기술, 생명기술과 더불어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시대에 선진환경기술의 개발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의 도모와 전문 환경기술인력의 중점 육성 및 일자리 수요창출에도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 또한 급변하는 환경문제를 예방적, 환경친화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발표회' 행사는 4개 분과로 구성하여 민과 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현안에 대해 상호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의 장으로 제1분과는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및 배출업소 1종 사업장의 수질TMS 구축계획과 관련 정책이 설명됐고, 제2분과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추가적인 정책방향 및 오·폐수 고도처리, 비점오염원 관리 등이 집중 설명됐습니다. 제3분과

는 대기관리 정책방향, 사업장대기총량규제, 악취관리 등이 설명됐으며, 제4분과는 하·폐수 슬러지 재활용과 해양투기 관련 정책에 대한 발표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정책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기술 발표회를 통해 환경인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어 바람직한 정책수립의 기틀 마련은 물론 환경기술인의 기술력향상과 현장실무적용에 유익한 활력소와 정보교류의 한마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양질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현안·방향과 처리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데 소통의 장, 정보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매년 환경분야 관계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정책의 환경부 실·국장을 비롯해 실무과장들이 직접 참석해 정책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어 매년 더 알찬 내용으로 현장실무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미있는 행사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이번 환경정책 및 신기술을 설명해 주신 발표자와 신기술 전시회에 참여해주신 환경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